



0711
황성신문
1898
1898

(一) 日十二月七戌戊曆陰

日曜日 日五月九年二武光韓大

第 第 每
一 日 刊
號 卷 行

皇 城 新 聞

光武二年
八月
農商工部



論 說

政府의 用人은 匠氏의 用材와 同하야 各其用處에 適宜함을 取하느니 何者오 匠氏가 舍屋을 經營할시 木石繩墨과 準尺을 持하고 材木의 大小와 曲直을 分揀하야 棟梁에 用할者는 棟梁에 用하고 椽樞에 用할者는 椽樞에 用하고 其他 椽梲과 枯杆에 至하야 各其宜를 得케 함이 造成하느니 制度와 結構하느니 規模가 一毫도 差錯이 無하야 幾日의 工力이 完固하느니 一屋이라 於是 焉에 其隣人이 主人을 來見하고 獻賀하야 曰 善卜哉라 此基址여 善構哉라 匠氏여 此家에 福祿이 綿延하리 로다 하면 其主人이 酒를 進하야 隣人을 勸하야 答謝하야 曰 此는 主人의 力이 아니오라 幸이 匠氏의 善手를 逢하야 屋宇를 堅固케 成하엿노라 하느니 政府도 亦然하야 官職을 組織할

시 문져 法律과 章程을 定하고 人員의 德望과 才質을 分別하야 將相에 合當하느니 將相을 任하느니 六卿에 合當하느니 六卿을 任하느니 其他內而百執事와 外而方伯守令이라 도 各其職에 當케 하면 幾年을 不過하야 富強하느니 一國이라 於是 焉에 隣國人君이 使臣을 專命하야 其國人君의 禮賀하야 曰 險固哉라 貴國山河여 公平哉라 貴國政府여 幾千年을 太平호 福을 享하쇼셔 하면 其國人君이 交際하느니 禮를 設하고 其使臣을 對하야 隣國人君에 禮賀하야 曰 此는 寡人의 力이 아니오라 幸이 政府에 善手가 有하야 國家가 萬分의 危를 免하얏노라 하야 雖編小國이라 도 隣國에 同等權利를 不失할 것이 어늘 今에 我國政府에 用人하느니 法을 試論하거디 人才를 隨하야 收用할生覺은 全無하고 但門閥과 交誼를 相較하야 各其任差하느니 某는 侍下에 其情地가 切迫하느니 不可不郡守一卿을 區處하야 某는 多率에 餓死之境을 當하얏스니 局長이나 參書官이나 下之主事一卿을 區處하야 某台子弟가 尙今白頭로 在하느니 此는 吾儕의 大羞耻라 今番에 齋郎一卿을 區處하야 某는 一分排하면 其得參하느니 某某가 逐逐相逢하야 致賀하야 曰 兄은 到하얏나 餓死之境은 免하얏네 某大臣이 兄에 積善하얏네 吾亦侍下榮感하얏네 某大臣이 世誼를 不忘하얏네 하야 一統言論이 某가 某官을 하얏스니 可謂其材에 合當하느니 者는 幾人을 得聞치 못하얏스니 此는 政府에 서 國家의 公器를 自己의 知舊間救荒하느니 材料로 知함이 然하고 其觀察使나 郡

守나 兩班더리 到任만하면 其人民視하기를 奇貨로 知하야 有罪無罪間에 星火捉來하야 다 가爾罪는 爾知之라 하면 其殷勤호 裏許는 孔方兄이 紹介라 此는 由하야 一國生靈이 塗炭에 在하야 其慘酷호 景色을 目으로 忍見키 難하거늘 政府에 서는 其用人함이 其人을 不得함은 思치안코 但此世上에 人才가 乏하야 國事를 共濟키 難하다 하느니 然하진디 엇지 匠氏더러 用材하느니 法을 問치 아니하시오

官 報

- 九月二日 ○ 宮庭錄事 ○ 議政府贊政李鍾健辭職 疏 批旨省疏具悉辭輒稱病病是何病 病不至難強勿辭行公、前副護軍吳甲三等言事疏 批旨省疏具悉令議政府稟處、幻學趙致龍等言事疏 批旨省疏具悉令政府稟處、以上八月三十一日
- 九月三日 ○ 廣告 ○ 外國語學校學員勸赴廣告 今에 官立漢語學校에 學員을 加選하리 今에 入學하거 願하느니 者는 本月一日로 爲始하야 同月十日內로 本部의 稟告하고 十二日에 本部로 進하야 入學試驗을 受함이 可하
- 九月一日 學部 ○ 宮庭錄事 ○ 內部大臣李根命辭職疏 批旨省疏具悉卿懇部務積滯卿亦諒會宜 不俟駕屢而備文崇護有欠務實非所待於 卿者也其勿煩瀆卽爲受勅事遣部郎宣諭 以上九月一日